



불교TV 채널 32는
서울 동대문구 마포동 418번지(금호전기빌딩)
에 설립되고, 불교TV 32인
부처님의 교단과
서울 동대문구 마포동 418번지
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전하는 불교텔레비전입니다.



TV부처님이 오셨습니다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시대 최대의 불사(佛事), 불교텔레비전 개국

3월 1일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깊은 암자에서나 들던 쇠북소리가 슈퍼마켓에도 들리고, 동네 미장원에서
들립니다. 바보상자라고 놀림받던 TV가 부처님 은덕으로 지혜의 눈을 뜬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천만 불자님네는 물론 이발소 최씨, 세탁소 장씨... 이 땅의 모든 선남선녀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만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TV가 대응전이 됩니다. 선방이 됩니다. 절이 됩니다.
TV부처님이 오셨습니다.

btn
불교TV 32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번지(금호전기빌딩)
전화: 3270-3300 팩스: 3270-3498

3월 1일, '채널 32' 불교텔레비전 개국